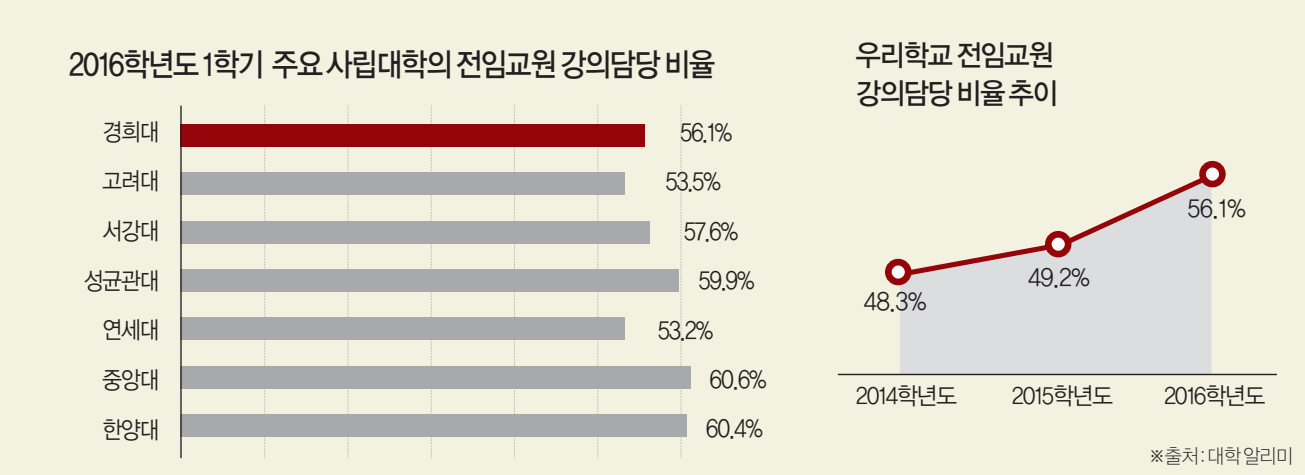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절반 넘었다

〈56.1%〉



대학알리미 - ① 전임교원 강의 비율

고상아 기자 ddang_ah@khu.ac.kr

우리학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대학정보공시가 시작된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20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56.1%로, 지난해 1학기 대비 7.2%P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됐다. 이밖에도 학생 (전공,교직,교양) 성적평가 분포, 등록금 현황,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등 6개 항목이 공시됐다.

우리학교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매 학년도 1학기 기준 2014년 47.5%, 2015년 48.9%로 최근 3개년 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다만 증가 정도가 미비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 지표에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학기 우리학교는 사립대학 전체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1.9%P 상승한 것과 비교해 약 4배나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때문에 지난해까지 주요 사립대학에 비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낮았던 우리학교가 비슷한 수준이 됐다. 2016년 1학기 현재 주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살펴보면 ▲중앙대 60.6%, ▲연세대 53.2%, ▲서강대 57.6%, ▲성균관대 59.9%, ▲한양대 60.4%, ▲고려대 53.5% 등이다.

이런 배경에는 올해부터 전임교원의 책임시수가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김용화 과장은 "올해 특이사항은 전임교원 책임시간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전임교원 책임시간이 늘어나면서 전임강의비율이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연간 책임시수는 지난 2008학년도에 기존 18시수에서 15시수로, 2011년 15시수에서 다시 12시수로 줄어들었다. 교수들의 연구를 권장한다는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대학 측에서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줄여도 교수 연구실적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 올해 다시 15시수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전년대비 7.2%P라는 상승폭은 그 요인을 '책임시수 증가'만으로 파악하기엔 너무 큰 수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총 강좌 수 감소와 시간강사 해고 등의 요인도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학교는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강좌 수를 줄이기 위해 강의 수를 축소하고 있다. 이에 총 강좌 수는 2014년 1학기 4,011개에서 2015년 1학기에는 3,900개, 그리고 후마 교과목 개편이 이루어진 올해 1학기에는 3,818개로 꾸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타 단과대와 비교했을 때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낮고 시간강사 강의비율이 높은 후마의 교과목 개편 또한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의 상승 요인일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올해 1학기 들어 비전임교원 중 시간강사의 강의담당비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학기 대비 6.6% 하락하여 25.4%를 기록한 것이다. 1학기를 기준으로 2013년 34.8%, 2014년 32.8%, 2015년 32%로 우리학교의 시간강사 강의담당비율이 그간 30% 대를 유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이러한 수치는 이례적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선 오는 8월 공시예정인 전체교원 중 전임교원 현황 등의 지표와 함께 분석해야겠지만, 후마의 교과개편이 전임교원 강의비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학기 후마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29.5%로 지난해 1학기(20.1%) 대비 9.4%p 상승했다. 전 단과대학의 총 개설 강의 학점(10,060.5)중 후마가 차지하고 있는 개설 강의 학점(2,805)이 27.9%로 가장 큰 비율인 점을 고려하면 후마 지표 향상이 전체강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후마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무용학부를 제외한 전체 단과대학 중 가장 낮다. 후마의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2014학년도 1학기 19.9%, 2015학년도 1학기 20.1%로 전체강의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29.5%로 상승한 올해도 여전히 전체강의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과의 차이가 26.6%p로 상당하다. 후마를 제외했을 때의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66.30%로 전체사립대학 평균(65.4%)보다도 높아진다.

더불어 지난 해 1학기 대비 5%p이상 상승한 단과대학을 살펴보면 ▲공과대학이 67.4%에서 72.5%로(+5.1%p) ▲정경대학이 61.0%에서 72.8%로(+11.8%p) ▲음악대학이 25.30%에서 31.83%로 (+6.53%p) ▲예술디자인대학이 34.64%에서 39.64%로(5.0%p) ▲문과대학이 60.58%에서 74.35%로(+13.77%p) 큰 폭 상승해 올해 전임교원 강의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정책원 서경아 부원장은 "교육여건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비롯해 강좌 수의 최적화 등 여러 부분에서 학교 구성원이 노력을 했다"며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다른 대학 평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성적평가 분포 여전히 높아

50명 이하 강좌 72.9% 최저 수준

대학알리미 - ② 성적분포·강좌규모

고상아 기자

한편 지난 달 29일 대학알리미에는 '학생 성적평가 분포'항목도 공시됐다. 학생 성적평가 분포는 졸업생의 졸업 성적 분포를 비롯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 교양과목 성적평가 분포, 교직과목 성적평가 분포 총 네 가지로 나누어 공시된다.

먼저 졸업생의 졸업 성적평가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학교의 지난해 졸업자 평점 평균은 4.3점 만점에 3.33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이를 백분율 성적으로 변환한 졸업 백분율 점수 평균은 89.33점으로 지난해의 89.26점보다 0.07점 높아져 사실상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학교의 학과 별 졸업 백분율 점수 평균은 주요사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우리학교와 비슷한 규모의 주요 사립대학을 살펴봤을 때, ▲건국대 88.11점 ▲고려대 88.82점, ▲성균관대 85.1점 ▲연세대 89.26점 ▲중앙대 87.09점 ▲한국외국어대 90.52점 ▲한양대 88.51점 등으로, 우리학교는 한국외국어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15학년도 1학기 기준 B학점(B-, B0, B+) 이상 취득 비율은 78.6%로 2014학년도 1학기(81.6%)에 비해 3%p 감소했다. 더불어 교양과목 성적평가 분포의 경우에도 이 비율은 지난해(82.9%) 대비 2%p낮아져 80.9%를 기록했으며, 교직과목 성적평가 분포의 경우도 95.9%로 지난해(97.4%) 대비 1.5%p감소해 재학생 성적평가 분포에서 B학점 이상 취득 비율은 모두 하향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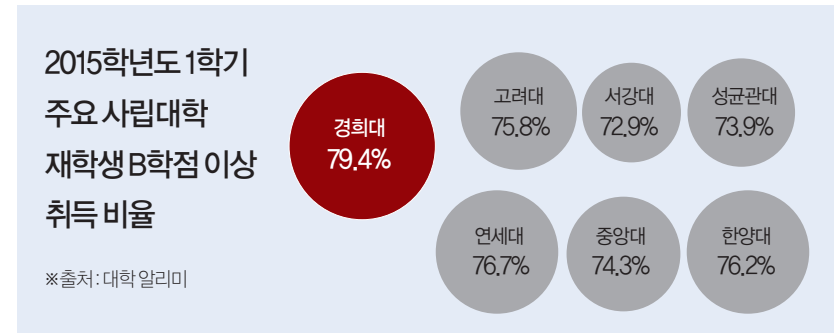
이러한 지표 변화는 지금껏 있어왔던 학점인플레이션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의 성적평가분포는 여전히 주요사립대학에 비해 높아 '학점을 잘 주는 대학' 이미지를 탈피하기에는 부족했다.

실제로 지난해 1학기 우리학교의 B학점 이상 취득 비율(79.4%)은 주요사립대학 중 가장 높다. 우리학교의 학점표준화제도(성적평가제도)는 '상위 40%이내 학생에게 B+이상 학점을 부여'하는 단일안이다.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김용화 과장은 "전체 평점은 타 대학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B+이상이 기준이다 보니까 B0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 B이상 비율이 높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대학본부와 양 캠퍼스 총 학생회가 성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6차까지 진행했으나 학점표준화제도에 있어서의 변경사항은 없었다.

한편 타 대학의 경우 등급별로 배분비율을 나누어 놓는 등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연세대의 경우 21명 이상 수강강좌에서는 A 비율 35% 이내와 B 비율 35% 이내, 20명 이하 수강강좌에서는 A 비율 40% 이내와 B 비율 50% 이내 등, 강좌 규모별로 성적평가 기준을 나누어 놓았다.

또 다른 공시 항목인 '강좌규모별 강좌수'분석 결과, 20명 이하 소형강좌는 818개로 지난해 1학기(660개)대비 158개 늘었고, 100명 이상 대형강좌는 88개로 지난해 1학기(93개) 대비 5개 줄었다. 그러나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명 이하 강좌 수는 72.9%로 최근 5개년 중 최저를 기록했고, 50명 이상 강좌 수는 27.1%로 최근 5개년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캠퍼스 2016학년도 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 안내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어학성적 · 자격증 취득, 수상, 봉사한 학생들 장학금 놓치지 마세요!"

●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6. 5. 30(월) ~ 6. 17(금) [3주간]
–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중, 모자이크인정현황표의 포인트 200,000점 이상자
(타장학수혜자에게도 장학 지급이 가능하며, 등록금 초과 장학지급 가능)
– 장학금 : 20만원~100만원

● 모자이크 장학이란?
– "학생의 역량강화나 사회공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분야	등급별 분류기준	포인트	비고
학업역량	국제단위 3위 입상 이상	500,000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2015.12.1.~ 2016.5.31 * 상기 기간 중 취득한 증명서 및 활동내역서 인정 * 외국어/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에 응시 및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전국단위 3위 입상 이상	300,000	
	시,도단위 3위 입상 이상	150,000	
	교내 경진대회 최우수상	100,000	
	SCI, SSCI급 학술지	500,000	
	SCIE급 학술지	400,000	
	국내 우수 학술지	150,000	
사회봉사 역량	해외자원봉사	50,000	
	교내외 자원봉사 10시간	10,000	
	헌혈자(2장)	10,000	
국제화 역량	토익 900점이상 / 토플(IT) 110점이상	200,000	
	토익 800점이상 / 토플(IBT) 100점이상	100,000	
	JLPT N1급 JPT 715 이상	200,000	
	JLPT N2급 JPT 540 이상	100,000	
	HSK 6급 이상 / 신 HSK 5급 이상	200,000	
	HSK 5급 / 신 HSK 4급 210 이상	100,000	
	DELF C1 – C2	200,000	
	DELF B2	100,000	
	TORFL–2	200,000	
	TORFL–1	100,000	
	ZD befriedigend 이상	200,000	
	ZD ausreichend 이상	100,000	
	DELE Dipolma Superior(고급)/ FLEX 듣기/읽기 901 이상 및 쓰기/말하기 227 이상	200,000	
	DELE Diploma Intermedio(중급) / FLEX 듣기/읽기 776 이상 및 쓰기/말하기 200 이상	100,000	
	한국어문회 1급	200,000	
	한국어문회 2급	100,000	

※ 기타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단대, 장학팀) 및 단과대학 게시판, 개인 이메일 참조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2016-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하기 → 개인역량 조회 → 신청 버튼 클릭, 완료(학생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으로 대체)
(*학생들은 평소에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역량관리 → 개인역량입력(및 증빙서류 단과대학 제출)을 하며, 단과대학의 승인 처리를 받아 놓아야 함)

● 관련문의 : janghak@khu.ac.kr/ http://janghak.khu.ac.kr, 961-0045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중앙도서관 연중기획 『책읽기의 즐거움』 내가 만난 세상

제18회 『다독 및 독서노트 습관화하기』 공모

중앙도서관에서는 경희 구성원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서관 소장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8회 다독 및 노트 습관화하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내용 : 다독(도서대출) 및 독서노트 작성
– 대상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대학원)
– 기간 : 2016. 5. 1(일) ~ 2016. 11. 25(금)

● 독서노트 작성
– 책을 읽고 간략하게 『독서노트』를 작성(100자 이상)
– 작성양식 : 홈페이지 로그인 → 읽은 책 도서검색 → 해당도서 독서노트 쓰기

● 발표
– 수상자 선정 : 독서노트 작성 건수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
– 당첨자 발표 : 2016. 12. 6(화)

● 시상
– 대 상 ····· 1명(상품권 30만원)
– 최우수상 ····· 2명(상품권 20만원)
– 우 수 상 ····· 3명(상품권 10만원)
– 입 선 ····· 12명(상품권 5만원)

● 유의사항
– 응모작은 본인의 순수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이미 발표되거나 제출된 작품, 표절물, 모방작은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작 중 적합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독서노트는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 수상 후에도 표절 또는 모방 사실이 밝혀질 시 수상 취소와 상금을 회수 조치함
– 제출된 모든 원고의 저작권은 도서관에 귀속됨

● 문의
–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T. 031-201-3213)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